

2019 비교과 교육과정 성공 후기 공모전

전공 역량 우수상

이○현(중어중문학과)

경진대회

내 용

처음에 신청하게 된 동기는 간단했었다. 나는 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모든 등록금을 내가 내기로 한 집안의 규칙상 장학금은 내 대학생활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오아시스같은 존재였다. 그렇기에,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강의실로 향하던 계단에서 벽에 붙어있는 이 대회의 공고문을 보고, 오로지 상금을 위해서 참여했었다. 그러나 참여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상금이 아닌 그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여러 정보들과 생각, 의견이 나를 그 곳으로 이끌고 있다.

경진대회의 규칙은 매우 간단하다. 여러 명 혹은 개인이 한 팀이 되어, 팀 마다 가지고 있는 5~7분의 발표 시간동안 자신들의 주제에 대해서 청중들 앞에서 발표하면 된다. 이 때에 중요한 것은 5~7분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초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기 보다는 적은 양의 내용을 깊이 있고, 색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계획서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해서 발표 내용을 도출했는지도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들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계획대로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 발표를 이루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회에 참여하면 생각보다 참신한 주제를 들고 참여하는 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중국 사이트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주제로 가져온 적도 있었고, 자신이 키우는 아로니아들을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면서 중국인에게는 어떻게 홍보하는지에 대해서 주제를 선택한 학생도 있었다.

그 중에서 나와 함께한 3명의 동기들은 가장 독특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대회를 위해서 시험이 끝난 주의 금요일에 아침부터 캐리어를 가져와 과실에 넣어두고, 바로 수업이 끝난 저녁 무렵 준비했던 짐들을 들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의 칭다오로 이동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들의 주제는 중국의 칭다오이었고, 주제가 정해지자마자 비행기 표를 구해서 대회의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는 전 주에 다 같이 칭다오로 떠난 것이다. 그 곳에서 우리는 상상 외로 매우 친절했던 노인 분들을 만났었다. 이기주의적인 중국인들의 모습들은 내가 자리

를 양보해준 할머니의 웃음과 정성어린 감사 한마디 덕에 정반대로 변화되었다. 우리는 인터넷과 문헌으로 얻을 수 있는 칭다오를 넘어, 실제로 그 곳에 감으로써 아무도 실행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곳이 어떤지에 대해서 진정한 자료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듯 경진대회에서는 딱딱한 전공 주제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창의적인 주제와 방법으로 이루어진 발표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의견들과 지식 그리고 생각들은 곧바로 나의 노트로 들어가 이후에 여러 전공 강의들을 수강하면서 레포트를 쓸 때에 새로운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며, 수많은 발표들을 눈앞에서 관찰하는 경험은 피피티 발표 때에 피피티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며, 어떤 행동을 발표 시에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 이런 경험은 분명히 오로지 경진대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경진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여러 조원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생각 외로 동기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고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대회의 주제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엇을 발표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혹은 그것이 저학년인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전공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 외에도 홈페이지에 이전 대회에 참여한 팀들의 주제와 발표 동영상들을 첨부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이 대회는 나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에게 여러 이득을 가져다준다. 대회는 여러 다양한 경험들의 발판이 되어주기도 하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그리고 확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다. 그리고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이후의 전공 강의에서 큰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미리 습득할 수도 있고, 레포트와 피피티 발표에도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발표 내용 외적으로도, 피피티 발표에 대한 태도와 구성 방식을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회가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발표 내용이 남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발표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은 전공 지식을 닦으며 대회의 참여를 주저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중어중문학과 경진대회'라는 대회 명칭 때문에 많은 전공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대회의 내용 및 주제는 '전공학습과 진로를 위한 창의력 경진대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 지식이 적더라도 색다른 접근법과 창의적 사고가 있다면 그 발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많은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에게 이 대회를 추천한다.